

Tc-99m 표지 항과립구항체 신티그람의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경북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영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계명의대 내과**

안병철, 천경아, 조인호*, 이인규**, 이재태, 이규보

Tc-99m 표지 항과립구항체는 체내에서 과립구에 부착되므로, 항과립구항체 신티그람은 과립구가 많이 존재하는 부위인 골수를 영상화 할 수 있어 골수에 전이된 종양의 진단과 골수기능 평가에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백혈구 침착이 있는 질환인 감염증 및 염증성 질환의 영상화에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1995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 경북대학교병원 및 영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에 항과립구항체 신티그람이 의뢰된 6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검사목적, 진단명 및 신티그람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았다. 대상 환자의 연령은 1세에서 79세로 평균 46세였으며, 남자가 42명으로 62.9%를 차지하였다. 영상은 Tc-99m 표지 항과립구항체를 정맥주사하고 4시간후 SPECT camera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감염부위의 확인이 목적인 경우, 필요에 따라 24시간 지연영상도 촬영하였다.

검사목적은 악성종양의 골수전이 진단이 25예(3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감염의 확인이 15예(35.8%)였으며, 골스캔이상의 평가가 11예(16.4%), 골수기능 평가가 5예(7.5%), 염증성장질환의 침범부위 확인이 2예(5.6%)였다. 악성종양의 골수전이 평가에서, 골수전이가 증명된 16예 모두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으나, 2명의 환자에서는 방사선 치료중 검사를 실시하여 유의한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감염평가의 경우 예민도가 83.3%(20/24)였으며, 2명의 염증성장질환 환자에서도 염증성 병변이 침범된 부위의 확인에 도움이 되었으며, 백혈병과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한 림프종 환자에서 골수의 기능평가에도 유용한 소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1예의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에서는 진단 초기에는 심장내 이상집적이 있었으나 항생제 치료후 임상적 호전과 함께 이상섭취가 소실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항과립구항체를 이용한 신티그람은 감염의 진단과 악성종양의 골수전이 확인에 도움이 되며, 골수기능 평가 및 염증부위 확인에도 도움을 주고, 또한 감염성질환의 경과관찰에도 유용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